최초의 완역본 『신약젼셔』(1900-1904-1906)의 완성 과정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유경민(전주대)

< 목차 >

1. 서론
2. 시험역본과 임시역본의 의의
3. 『신약젼셔』의 번역과 수정 및 출판 과정
4. 어휘의 교체와 생략, 그리고 어순의 문제
5. 결론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른 분야의 문헌 자료들에 비하여 한국어 성경 자료는 국어학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서구의 개신교 선교사들의 저작 활동은 종교적 목적을 최상위로 한 결과물이고, 이 때문에 그들이 남긴 문헌 자료들은 비학문적인 결과로서, 편협적인 어휘와 표현들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국어학적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2022833).

www.kci.go.kr

연구에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 성경은 매 시기 선교를 목적으로, 각 계층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국문 성경과 국한혼용문[1] 성경을 출판하고, 현실 언어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맞춤법을 고려하여 끊임없이 수정본과 개역본을 간행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의의를 지닌 국어사 자료이다.

한국어 번역 성경 자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를 의심하는 연구자들의 지적 중에는 현대 한국어 번역 성경의 언어 표현이 어문 규정, 혹은 정규 표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많아 객관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한국어 번역 성경이 왜, 언제부터 그런 비규정적인 표현 형태로 정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밝혀 한국어 번역 성경 자료가 지닌 근·현대국어사적 의의를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성경 자료와는 대조적으로 국어사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불교, 유교, 의학, 역학 관계 등의 한글 문헌 자료들의 연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연구 방법론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앞으로 진행될 한국어 번역 성경 연구들을 위한 토대 작업으로, 한국어 번역 성경의 초기 공인역 성경의 번역과 수정 과정을 살핀다. 현대 한국어의 문체 형성과 어휘의 정착에 한국어 번역 성경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초기 번역 성경의 정착 과정을 꼼꼼하게

1) 국한혼용문 성경의 저본이 된 한문 원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성경의 국한혼용문체를 (경전)언해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관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어 성경 번역사나 국어사 연구에서 많이 거론되는 『예수셩교젼셔』(1887)에 대해서 알려진 번역 과정 때문이기도 하다. 즉, 조선인 번역자들이 한문 문리 성경을 한글로 옮기고, 그 초역을 외국인 선교사들이 헬라어 성경과 영어 개역 성경을 대조하며 고치는 방식이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국한혼용문 성경의 번역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본문 대조를 통하여 국한혼용문 성경의 성분절 수나 어순의 문제, 음역의 문제, 조사나 어미의 일치도 문제 등을 살펴보면, 먼저 출간된 국문 성경을 저본으로 국한혼용문 성경이 만들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장 대중적인 독자층을 배려한 국문으로 먼저 번역되고 국문 성경을 국한혼용문 성경으로 교작(交作)하였던 까닭은 유경민(2011:234)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성경 독자층을 더 넓게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독자층을 배려한 문체라는, 바로 이점이 성경의 국한혼용문체가 현대국어의 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어져온 요인인 것이다.

www.kci.go.kr

살피는 것이다.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혼란 속에서 근대적 출판의 역사를 만들어 온 한국어 번역 성경의 문체와 어휘 활용의 특성을 고찰한다.

1.2. 연구 대상

본고에서는『신약젼셔』의 시험역(1900), 임시역(1904), 공인역(1906)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본문을『新約全書 국한문』(1906)과 함께 대비 연구한다. 해당 복음서들은 사건을 보고 기술하는 관점이 비슷한 공관(共觀) 복음서[2]로서 본문 대비를 통한 어휘 활용 양상의 고찰에 가장 적절한 부분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개인역의 합본 수준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1900년본에서도 복음서 부분은 공동 번역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공인역의 정착 과정을 살피는 연구 대상의 범위로 공관 복음서를 선정하였다. 성서번역자회(The Premanent Executive Bible Commitee:Board of Official Translators, 1893~1910)의『신약젼셔』공인역본(1906)이 완성되기까지 어떠한 번역과 수정 과정을 거쳤는지, 또,『新約全書 국한문』(1906)은 어떤 국문 성경을 저본으로 집필되었는지를 살핀다. 국문 공인역 성경이 국한혼용문 성경(『新約全書 국한문』(1906))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히로다카시 2006:532-534, 유경민 2011:282-283). 문제는, 최초의 국한혼용문 성경 전서[3]인『新約全書 국한문』(1906)의 저본으로 활용된 국문 성경 전서가 1900년의 시험역본인지, 1904년의 임시역본인지, 1906년의 공인역본(公認譯本, authorized version)인지가 아직도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인데, 본고에서『신약젼셔』의 시험역본, 임시역본, 공인역본의 대조 작업을 통해 밝힌다.

영국성서공회의 소속으로 1895년부터 한국 지부의 초대 총무로 임명되어 와 있던 켄뮤어(Alexander Kenmure)의 서신을 보면, 1903년에 언더우드와 게일은

2) 공관 복음서 중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형태로 가장 먼저, 가장 짧게 쓰여졌는데 다른 복음서의 기본 자료가 되었다. 실제로 마태복음의 약 1/2, 누가 복음의 약 1/3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쓰여졌다.

3) 더 이른 시기에 李樹廷이 일본에서 번역한『신약마가젼복음셔언히』(1885)도 국한혼용문이었으나 全書가 국한혼용문으로 번역되어 출판된 것은『新約全書국한문』(1906)이 최초이다.

www.kci.go.kr

이미 韓漢 혼용문으로 작성된 신약전서 번역문을 가지고 있었고, 국문 번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출판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1903년 3월 27일 서신). 그러나 켄뮤어 서신에서 언급된 그 국한혼용문 원고가 다듬어져 출간된 것이 『新約全書 국한문』(1906)인지는 알 수 없다. 혹 그렇다면, 19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출판된 국문 신약전서는 시험역(1900년)본 『신약젼셔』뿐이었으므로 국한혼용문 성경의 저본이 시험역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히로다카시(2006)의 설명과 같이 이미 만들어진 국한혼용문 원고를 1906년 『신약젼셔』에 맞춰 다시 다듬어 출간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저본을 출간 연도만을 가지고, 혹은 부분적인 대비 결과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본고는 4종의 성경을 대비하며 다음과 같은 분명한 판각상의 실수나 오류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 ㄱ. 예수ㅣ 쩍 다ᄉᆞᆺ 덩이와 싱션 두 마리를 가지샤 하ᄂᆞᆯ을 우러러 복을 빌으시고 쩍을 ᄲᅦ여 뎨ᄌᆞ를 주어 여러사ᄅᆞᆷ 압헤 베믈게[베플게] ᄒᆞ시고 ᄯᅩ 싱션 두 마리도 모든사ᄅᆞᆷ의게 ᄂᆞ화주시매<1904마가06:41>
ㄴ. 쩌[뗴]로 안칠식 빅식도 안고 오십식도 안즌지라<1904마가06:40>
ㄷ. 예수ㅣ 고로옴이 귀[극]진ᄒᆞ샤 긔도ᄒᆞ시기를 더욱 ᄀᆞᆫ졀이 ᄒᆞ시니 ᄯᅳᆷ이흐르ᄂᆞᆫ피방울ᄀᆞᆺ치짜헤쩌러지더라<1904누가22:44>
ㄹ. 먹고 다 빈부노[론]지라 그 ᄂᆞᆷ은부스러기를 주으니 열두 광주리가 되더라<1904누가09:17>
ㄹ'. 예수ㅣ 홀론[노] 계셔 긔도ᄒᆞ실식 문도ㅣ ᄒᆞᆫ가지로ᄒᆞ더니 예수ㅣ 무러 ᄀᆞᆯᄋᆞ샤ᄃᆡ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ᄒᆞ더냐 ᄒᆞ시니<1904누가09:18>

(1ㄹ)의 '빈부노지라'와 (1ㄹ')의 '홀론'은 '빈부론지라'와 '홀노'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론'과 '노'가 비슷한 위치의 바로 옆 행에 붙어 있어 한글을 전혀 모르는 일본의 문선공(文選工)이 위치를 바꿔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문선공의 실수임이 분명한 예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1.3.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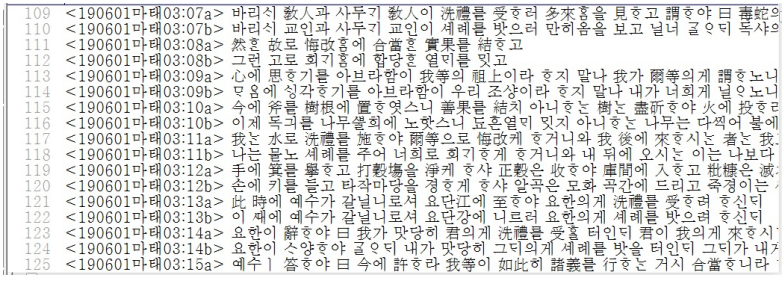
『신약젼셔』 시험역(1900), 임시역(1904), 공인역(1906)과 『新約全書국한문』

www.kci.go.kr

(1906)의 대비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해당 성경의 본문을 문장-구절-어절에 대한 언어 단위별로 대조 분석한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대상으로 한 대조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언어간 대조 분석에서는 문법 구조의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국어의 문법 구조를 따르고 있는 한국어 성경 본문들 간의 대조에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다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조 분석의 방법으로 『신약젼셔』(1900/1904/1906)의 완성 과정을 살피고,『新約全書 국한문』(1906)과 대조하여 한국어 성경의 정착 과정을 살핀다.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① 성경 본문의 절 단위 대조

성경의 한 절은 대체로 하나의 문장인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절 단위 대조는 <그림 1>과 같은 대조용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만들어 활용한다.


109 <190601마태03:07a> 바리식 敎人과 사두기 敎人이 洗禮를 受ᄒᆞ러 多來ᄒᆞᆷ을 見ᄒᆞ고 謂ᄒᆞ야 曰 毒蛇의
110 <190601마태03:07b> 바리식 교인과 사두기 교인이 세례를 밧으러 만히옴을 보고 닐너 ᄀᆞᆯᄋᆞ되 독샤의
111 <190601마태03:08a> 然ᄒᆞᆫ 故로 悔改ᄒᆞᆷ에 合當ᄒᆞᆫ 實果를 結ᄒᆞ고
112 <190601마태03:08b> 그런 고로 회기ᄒᆞᆷ에 합당ᄒᆞᆫ 열미를 밋고
113 <190601마태03:09a> 心에 思ᄒᆞ기를 아브라함이 我等의 祖上이라 ᄒᆞ지 말나 我가 爾等의게 謂ᄒᆞ노니
114 <190601마태03:09b> 무ᄋᆞᆷ에 싱각ᄒᆞ기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샹이라 ᄒᆞ지 말나 내가 너희게 닐ᄋᆞ노니
115 <190601마태03:10a> 今에 斧를 樹根에 置ᄒᆞ엿스니 善果를 結치 아니ᄒᆞᄂᆞᆫ 樹ᄂᆞᆫ 盡斫ᄒᆞ야 火에 投ᄒᆞ리
116 <190601마태03:10b> 이제 독긔를 나무ᄲᅮᆯ희에 노핫스니 됴흔열미 밋지 아니ᄒᆞᄂᆞᆫ 나무는 다찍어 불에
117 <190601마태03:11a> 我ᄂᆞᆫ 水로 洗禮를 施ᄒᆞ야 爾等으로 悔改케 ᄒᆞ거니와 我 後에 來ᄒᆞ시ᄂᆞᆫ 者ᄂᆞᆫ 我
118 <190601마태03:11b> 나는 믈노 세례를 주어 너희로 회기ᄒᆞ게 ᄒᆞ거니와 내 뒤에 오시ᄂᆞᆫ 이는 나보다
119 <190601마태03:12a> 手에 箕를 擧ᄒᆞ고 打穀場을 淨케 ᄒᆞ샤 正穀은 收ᄒᆞ야 庫間에 入ᄒᆞ고 秕糠은 滅
120 <190601마태03:12b>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졍ᄒᆞ게 ᄒᆞ샤 알곡은 모화 곡간에 드리고 쭉졍이는
121 <190601마태03:13a> 此 時에 예수가 갈닐니로셔 요단江에 至ᄒᆞ야 요한의게 洗禮를 受ᄒᆞ려 ᄒᆞ신ᄃᆡ
122 <190601마태03:13b> 이 ᄯᅢ에 예수가 갈닐니로셔 요단강에 니르러 요한의게 세례를 밧으려 ᄒᆞ신ᄃᆡ
123 <190601마태03:14a> 요한이 辭ᄒᆞ야 曰 我가 맛당히 君의게 洗禮를 受ᄒᆞᆯ 터인ᄃᆡ 君이 我의게 來ᄒᆞ시
124 <190601마태03:14b> 요한이 ᄉᆞ양ᄒᆞ야 ᄀᆞᆯᄋᆞ되 내가 맛당히 그ᄃᆡ의게 세례를 밧을 터인ᄃᆡ 그ᄃᆡ가 내
125 <190601마태03:15a> 예수ㅣ 答ᄒᆞ야 曰 今에 許ᄒᆞ라 我等이 如此히 諸義를 行ᄒᆞᄂᆞᆫ 거시 合當ᄒᆞ니라

<그림 1>『신약젼셔 1906』과『新約全書 국한문 1906』의 본문 대비

성경의 원전은 이미 책, 장, 절별로 구분되어 있는 까닭에 상대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번역 성경의 대조 분석을 위한 <번역 성경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각 번역 성경 텍스트를 성경의 장, 절 구분에 따라 전자텍스트화한 후, 본문의 대조가 용이한 형태로 <그림 1>과 같이 정렬한 다음, 정렬된 텍스트를 에디터와 문맥 색인 도구를 이용하여 어휘간 대응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형태(<그림 2>, <그림 3>)로 가공한다.

www.kci.go.kr

② 구절 단위 대조

성경에서 하나의 절은 대체로 둘 이상의 구절로 이루어진다. 구절 단위의 대조는 절 단위 대조 결과 번역이 달라지거나 어순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구절 단위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것들은 별도로 절 단위로 추출하여 별도의 구절 대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을 변이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배경을 확인한다.

③ 어절 단위 대조

성경들의 어절이 1:1 대응을 보이는 경우 <그림 2>, <그림 3>과 같은 번역어 대비용 DB를 이용한다. 각 대응 양상별 주석을 거쳐 대응의 유형을 나누고, 한자어화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한자어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대응 양상이 고유어를 한자어화하는 경우와 한자어를 한자어화 하는 경우, 그리고 양자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어순이 바뀌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을 고찰한다.

20222	맞ㅡ»	맛거늘»	迎ᄒᆞ거늘»	<190604요한12:18>
20223	맛은편#»	마즌편»	越便»	<190603누가08:26>
20224	맛은편#»	마즌편에»	越便에»	<190603누가24:50>
20225	맛쥬ㅡ»	맛초고»	接ᄒᆞ고»	<190603누가07:38>
20226	맛쥬ㅡ»	맛초니»	接ᄒᆞ니»	<190601마태26:49>
20227	맛쥬ㅡ»	맛초니»	接ᄒᆞ니»	<190602마가14:45>
20228	맛쥬ㅡ»	맛초니»	接ᄒᆞ니»	<190603누가15:20>
20229	맛쥬ㅡ»	맛초ᄂᆞᆫ»	接ᄒᆞᄂᆞᆫ»	<190602마가14:44>
20230	맞ㅡ»	맛도록»	終토록»	<190603누가05:05>
20231	맞ㅡ»	맛도록»	終토록»	<190603누가06:12>
20232	맡ㅡ»	맛하»	掌ᄒᆞ야»	<190604요한12:06>
20233	맡ㅡ»	맛핫스매»	掌ᄒᆞ엿스매»	<190604요한13:29>
20234	맡ㅡ»	맛핫스매»	任ᄒᆞ엿스매»	<190603누가04:06>
20235	맡ㅡ»	맛혼»	司혼»	<190604요한02:08>
20236	맡ㅡ»	맛혼»	司혼»	<190604요한02:09>
20237	맡ㅡ»	맛혼»	司혼»	<190604요한02:09>
20238	맡ㅡ»	맛혼지라»	맛혼지라»	<190604요한19:17>

<그림 2>『신약젼셔 1906』과『新約全書 국한문 1906』의 고유어 대비

41128	[_寂_]	고요하ㅡ	고요ᄒᆞ라	寀[_寂_]ᄒᆞ라	<190602마가04:39>
41129	[_寂_]	한젹하ㅡ	한젹ᄒᆞᆫ	閑[_寂_]ᄒᆞᆫ	<190602마가06:31>
41130	[_寂_]	한젹하ㅡ	한젹ᄒᆞᆫ	閑[_寂_]ᄒᆞᆫ	<190602마가06:32>
41131	[_寂_]	한젹하ㅡ	한젹ᄒᆞᆫ	閑[_寂_]ᄒᆞᆫ	<190603누가04:42>
41132	[_寂_]	한젹하ㅡ	한젹ᄒᆞᆫ	閑[_寂_]ᄒᆞᆫ	<190602마가01:35>
41133	[_摘_]	따ㅡ	짜겟ᄂᆞ냐	[_摘_]ᄒᆞ겟ᄂᆞ냐	<190601마태07:16>
41134	[_摘_]	따ㅡ	짜며	[_摘_]ᄒᆞ며	<190601마태07:16>
41135	[_摘_]	따ㅡ	짜지	[_摘_]지	<190603누가06:44>
41136	[_摘_]	따ㅡ	짜지	[_摘_]지	<190603누가06:44>
41137	[_摘_]	따ㅡ 먹ㅡ	짜먹을	[_摘_]食ᄒᆞᆯ	<190602마가11:14>
41138	[_摘_]	자르ㅡ	잘나	[_摘_]ᄒᆞ야	<190603누가06:01>
41139	[_摘_]	자르ㅡ	잘으니	[_摘_]ᄒᆞ니	<190602마가02:23>
41140	[_摘_]	자르ㅡ먹ㅡ	잘나먹더니	[_摘_]食ᄒᆞ더니	<190601마태12:01>
41141	[_敵_]	대젹하ㅡ	딕뎍지	對[_敵_]지	<190601마태05:39>
41142	[_敵_]	대젹하ㅡ	딕뎍ᄒᆞ고	對[_敵_]ᄒᆞ고	<190603누가11:53>
41143	[_敵_]	대젹하ㅡ	딕뎍ᄒᆞ야	對[_敵_]ᄒᆞ야	<190602마가13:12>
41144	[_敵_]	대젹하ㅡ	딕뎍ᄒᆞ야	[_敵_]ᄒᆞ야	<190601마태10:21>

<그림 3>『신약젼셔 1906』과『新約全書 국한문 1906』의 한자어 대비

www.kci.go.kr

<그림 2>, <그림 3>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가공하는 것은 대응 관계가 규칙적인 텍스트 사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전체 성경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번역 상의 차이로 인해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번역이 달라져 이러한 방식의 가공이 어려운 경우, 일차적으로는 <그림 1>과 같은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되, 본문의 대조를 통해 번역이 달라져 <그림 2> <그림 3>과 같은 방식의 가공이 어려운 부분은 장, 절을 구분하여 별도의 DB로 정리한 후, 구절 단위 혹은 문장 단위의 대조 자료를 만든다.

2. 시험역본과 임시역본의 의의

공인역본(1906)『신약젼셔』에 비해 1900년 시험역본과 1904년 임시역본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번역본이다. 그러나 이 두 자료는 우리나라 최초의 완역 공인역본『신약젼셔』(1906)의 번역 양상과 언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번역본들이다. 현재 1900년 시험역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은『開化期國語資料集成 성서문헌편』9(정길남 편 1995)와『韓國聖經大全集』9(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2002)이다. 그런데 다음의 예와 같이 두 문헌은 다른 번역 양상을 보인다.『신약젼셔』(1900)으로 출판된 한국어 번역 성경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2) ㄱ. 쥬의 셩령이 닉게 이ᄉᆞ문 나를 기름발나 복음을 가난ᄒᆞᆫ 쟈의게 뎐ᄒᆞ며 나를 보내여 사루잡편 쟈를 노이기를 고ᄒᆞ며 소경을 발게ᄒᆞ며 샹ᄒᆞᆫ 쟈를 노와 가게ᄒᆞ여써<1887누가04:18>[4]

ㄴ. 쥬의 셩령이 내게 림ᄒᆞ시니 대개가난ᄒᆞᆫ 이의게 아롬다온쇼식을 젼ᄒᆞ게 ᄒᆞ시랴고 내게 기롬을 바ᄅᆞ시고 나를 보내샤 잡힌 쟈의게 다시 노힘을 젼파ᄒᆞ고 패ᄒᆞᆫ 쟈를 ᄌᆞ유케 ᄒᆞ고<개화기1900누가04:18>

4) 로스 번역본의 예를 보인 까닭은 공인역본과의 단절성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것은 현대로 이어지는 한국어 성경 번역의 역사가 공인역『신약젼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www.kci.go.kr

ㄷ. 쥬의 셩령이 내게 림ᄒᆞ시니 대개가난ᄒᆞᆫ 이의게 아름다온쇼식을 젼ᄒᆞ게 ᄒᆞ시랴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샤 잡힌 쟈의게 다시 노힘과 눈먼쟈의게 다시 봄을 젼파ᄒᆞ고 패ᄒᆞᆫ 쟈를 ᄌᆞ유케 ᄒᆞ고<대전집1900누가04:18>

ㄹ. 쥬의 셩신이 내게 림ᄒᆞ심은 간난ᄒᆞᆫ 이의게 아름다은쇼식을 젼ᄒᆞ게 ᄒᆞ시려고 내게 기름을 바르시고 나를 보내샤 잡힌 쟈의게 다시 노힘과 눈먼쟈의게 다시 봄을 젼파ᄒᆞ고 패ᄒᆞᆫ 쟈를 ᄌᆞ유케 ᄒᆞ고<1904 누가04:18>

ㅁ. 쥬의 셩신이 내게 림ᄒᆞ샤 간난ᄒᆞᆫ 쟈의게 복음을 젼ᄒᆞ게 ᄒᆞ시랴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샤 사로잡힌 쟈로 다시 노히고 눈먼 쟈로 다시 보게ᄒᆞᆫ다홈을 젼파ᄒᆞ고 눌닌 쟈를 ᄌᆞ유케 ᄒᆞ고<1906 누가04:18>

ㅂ. 主의 聖神이 我의게 臨ᄒᆞ샤 貧ᄒᆞᆫ 者의게 福音을 傳ᄒᆞ게 ᄒᆞ시랴고 我의게 膏를 注ᄒᆞ시고 我를 遣ᄒᆞ샤 被擄ᄒᆞᆫ 者로 다시 見放ᄒᆞ고 瞽ᄒᆞᆫ 者로 다시 視케 ᄒᆞᆫ다 홈을 傳播ᄒᆞ고 被壓ᄒᆞᆫ 者를 自由케 ᄒᆞ고<1906 누가04:18>

켄뮤어 서신(1904년 7월 13일)을 보면 켄뮤어가 교정 작업을 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의 '눈먼 쟈의게 다시 봄을'을 삽입하였다고 되어 있다. (예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0년 시험역본이 둘인데, 당시 켄뮤어에게 전달된 교정지는 (2ㄴ) 『開化期 國語資料集成』에 수록된 1900역본이었음 알 수 있다. 『韓國聖經大全集』에 수록된 1900년본에서는 '눈먼 쟈의게 다시 봄을'이 생략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1900년 신약전서는 큰활자로 삼문출판사(美以美[5]活版所)에서 발행되었고, 작은 활자로는 요코하마 인쇄소[6]에서 발행되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한국기독교역사실-개신교의 수용과 성장-성경번역'에 소장된 1900년본이 요코하마에서 출판된 것인데, 박물관에서 제공한 이미지 파일을 살펴보면, 이것이 『韓國聖

5) 표지의 좌측 하단에서 '미이미교회인쇄쇼'를 확인할 수 있다. 미이미(美以美)는 Methodist의 음역(音譯)이다.

6) 성경의 앞 속표지에 표시되어 있는데, 요코하마 시 거류지 81번지에 만들어진 복음인쇄합자회사(福音印刷合資會社)에서 다시 한국어 성경의 대부분이 출판되었다. 우리나라에도 당시 헐버트가 맡고 있던 북감리교 인쇄소였던 '삼문출판소(The Trilingual Press, 후에 미이미교회인쇄소가 됨)'가 있었으나 이미 전문화된 일본에서의 작업을 경비상 따라 갈 수 없었다. 켄뮤어가 일본에서의 출판을 결정한 데 대하여 북감리교선교회 대표들은 자신들의 인쇄소를 불공평하게 대한다는 항의를 많이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켄뮤어 서신 2006, 1903년 7월 27일)

www.kci.go.kr

經大全集』에 수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ㄱ. 회당에 잇ᄂᆞᆫ 쟈들이 이거슬 듯고 다 심히노ᄒᆞ야<대전집1900누가04:28>
ㄴ. 회당에 잇ᄂᆞᆫ 쟈들이 이를 듯고 다 노홈이심ᄒᆞ야<개화기1900누가04:28>
ㄷ. 회당에 잇ᄂᆞᆫ 쟈들이 이를 듯고 다 노홈이심ᄒᆞ여<1904누가04:28>
ㄹ. 회당에 잇ᄂᆞᆫ 쟈들이 이거슬 듯고 다 심히노ᄒᆞ야<1906누가04:28>
ㅁ. 會堂에 在ᄒᆞᆫ 者들이 此를 聞ᄒᆞ고 다 甚怒ᄒᆞ야<1906누가04:28>

'심히 노ᄒᆞ야'와 '노홈이 심ᄒᆞ야'의 달라진 어순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서울 인쇄본과 일본 인쇄본이 다르고, 1904년역본이 미이미 인쇄본과 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켄뮤어가 교정 작업을 진행하였던 1900년본이 미이미 인쇄소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다.

(4) ㄱ. 예수ㅣ 무리의게 말ᄉᆞᆷ을시작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이 글을 너희 귀로 드럿시니 오ᄂᆞᆯ 응ᄒᆞ나 ᄒᆞ시거ᄂᆞᆯ<대전집1900누가04:21>
ㄴ. 예수ㅣ 무리의게 말ᄉᆞᆷ을시작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이 글이 오ᄂᆞᆯ 네귀에 일우엇다 ᄒᆞ시니<개화기1900누가04:21>
ㄷ. 예수ㅣ 무리의게 말ᄉᆞᆷ을시작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이 글을 오ᄂᆞᆯ 네귀에 일우엇다 ᄒᆞ시니<1904누가04:21>
ㄹ. 예수가 무리의게 말ᄉᆞᆷ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이 글을 너희 귀로 드럿스니 오늘 응ᄒᆞ엿다 ᄒᆞ시거ᄂᆞᆯ<1906누가04:21>
ㅁ. 예수가 衆의에 言ᄒᆞ야 曰 此 書를 爾等의 耳로 聞ᄒᆞ엿스니 今日에 應ᄒᆞ엿다 ᄒᆞ시거늘<1906누가04:21>

(5) ㄱ. 마귀의게 시험홈을 밧아시고 이 모든 날에 아모것도 잡수지 아니ᄒᆞ시니 날을 ᄆᆞᆺ초매 주리셨더니<대전집1900누가04:02>
ㄴ. 마귀의게 시험홈을 보시ᄂᆞᆫ지라 이 모든 날에 먹지 아니ᄒᆞ시니 마ᄌᆞ막날에 시쟝ᄒᆞ시더니<개화기1900누가04:02>
ㄷ. 마귀의게 시험을 밧으시고 이 모든 날에 먹지 아니ᄒᆞ시니 마ᄌᆞ막날에 시쟝ᄒᆞ시더니<1904누가04:02>
ㄹ. 마귀의게 시험을 밧으시고 이 모든 날에 아모것도 잡수시지 아니ᄒᆞ시니 날이 다ᄒᆞ매 주리시더니<1906누가04:02>
ㅁ. 魔鬼의게 試驗을 受ᄒᆞ시고 此 諸 日에 아모것도 吃치 아니ᄒᆞ시니 日이

www.kci.go.kr

盡ᄒᆞ매 饑ᄒᆞ시더니<1906누가04:02>

(4ㄱ, ㄹ)과 (4ㄴ, ㄷ)의 '너희 귀로 드럿시니 오늘 응ᄒᆞ나'와 '오늘 네귀에 일우엇다'의 어휘 수정과 어순 변화를 보면, 1904역본(특히 누가복음)을 실패본으로 간주하고(켄뮤어서신 1905년 1월 13일), 공인역본(1906)의 번역에 다시 시험역(1900)본을 참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 이것은 요코하마에서 인쇄된 1900년본이다. (4), (5)의 예와 같이 공인역본과 1900년 요코하마 인쇄본이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적지 않다. 공인역본도 요코하마에서 인쇄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1904년의 임시역본은 1900년 시험역본이 나온 후 여러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렵게 출판된 판본인데 현재까지 제대로 전해지는 것도 많지 않아 연구 대상 자료로 다루어진 적도 없다. 본고에서는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신약젼셔』(1904)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신약젼셔』(1904)에서는 빨간색 펜의 교정 흔적들이 확인되나 그 수정 내용이 1906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빨간색 펜 수정이 그대로 『신약젼셔』(1906)에 반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00본이나 1904본에 '뷘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빨간색 수정에서는 '황무디'로 수정하였으나 『신약젼셔』(1906)에는 이전 역본들에서와 같이 '뷘들'로 표현되어 있고, 『新約全書 국한문』(1906)에서는 '曠野'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확인한 한국어 번역 성경의 어느 판본에서도 '황무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공인역본을 위해 1904년본의 수정 작업에 참여했던 번역자회의 누군가의 개인 소장품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 누가복음 부분에는 빨간색의 교정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일본에 있는 켄뮤어에게 배달된 임시역본(1904)과 관련된 성경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빨간색 수정의 흔적들이 반영되어 『신약젼셔』(1906) 공인역본이 완성되었음을 역본별 대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6) ㄱ. 동침치 안코 아달을 나으메 밋처 일홈을 칭ᄒᆞ여 예수라 ᄒᆞ다라<1887마태01:25>

ㄴ. 아돌 낫키ᄭᅡ지 안히로 알지 아니ᄒᆞ고 일홈을 예수ㅣ라 ᄒᆞ엿ᄂᆞ니라<개화기

www.kci.go.kr

1900마태01:25>

ㄷ. 아돌 낫키ᄭᅳ지 안히로 알지 아니ᄒᆞ고 일홈을 예수ㅣ라 ᄒᆞ엿ᄂᆞ니라<대전집 1900마태01:25>

ㄹ. 동침ᄒᆞ지 아니ᄒᆞ고 아돌을 나흐매 일홈을 예수ㅣ라 ᄒᆞ니라<1904마태 01:25>

ㅁ. 아돌을 낫키ᄭᅳ지 동침치 아니ᄒᆞ더니 나흐매 일홈을 예수ㅣ라 ᄒᆞ니라<1905 마태01:25>

ㅂ. 아돌을 낫키ᄭᅳ지 동침치 아니ᄒᆞ더니 나흐매 일홈을 예수라 ᄒᆞ니라<1906마 태01:25>

ㅅ. 子를 生ᄒᆞ기ᄭᅳ지 同寢치 아니ᄒᆞ더니 生ᄒᆞ매 名을 예수라 ᄒᆞ니라<1906마태 01:25>

(7) ㄱ. 죄 샤ᄒᆞᄂᆞᆫ 구완의로써 그 빅셩을 알게ᄒᆞ문<1887누가01:77>

ㄴ. 빅셩의게 구쇽홈을 알게ᄒᆞ리니 곳 그 죄샤홈을 엇ᄂᆞᆫ거시라<개화기1900누 가01:77>

ㄷ. 죄 샤ᄒᆞ심으로 빅셩의게 구쇽홈을 알게ᄒᆞ리니<대전집1900누가01:77>

ㄹ. 죄 샤ᄒᆞ심으로 빅셩의게 구쇽홈을 알게ᄒᆞ리니<1904누가01:77>

ㅁ. 죄 샤ᄒᆞ심으로 빅셩의게 구원홈을 알게ᄒᆞ리니<1905누가01:77>

ㅂ. 죄를 샤ᄒᆞ심으로 빅셩의게 구원홈을 알게ᄒᆞ리니<1906누가01:77>

ㅅ. 罪를 赦ᄒᆞ심으로 百姓의게 救援홈을 知케ᄒᆞ리니<1906누가01:77>

(8) ㄱ. 하나님이 어엽근 비 네기ᄂᆞᆫ 마암으로써 앗츰날을 우으로부터 우리게 님ᄒᆞ여 <1887누가01:78>

ㄴ. 이ᄂᆞᆫ 우리 하ᄂᆞ님의 긍휼ᄒᆞ시ᄂᆞᆫ ᄆᆞᄋᆞᆷ을 힘닙음이라<개화기1900누가 01:78>

ㄷ. 이ᄂᆞᆫ 우리 하ᄂᆞ님의 긍휼ᄒᆞ시ᄂᆞᆫ ᄆᆞᄋᆞᆷ을 힘닙음이라<1900_대전집누가 01:78>

ㄹ. 이는 우리 하ᄂᆞ님의 긍휼ᄒᆞ시ᄂᆞᆫ ᄆᆞᄋᆞᆷ을 힘닙음이라 이거스로써 히돗음이 우흐로브터 우리게 림ᄒᆞᆫ거슨<1904누가0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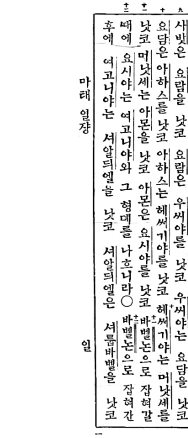
ㅁ. 이는 우리 하ᄂᆞ님의 긍휼ᄒᆞ시ᄂᆞᆫ ᄆᆞᄋᆞᆷ을 인홈이라 이로써 돗ᄂᆞᆫ히가 우흐로브 터 우리게 림ᄒᆞ야<1905누가01:78>

ㅂ. 이는 우리 하ᄂᆞ님의 긍휼ᄒᆞ시ᄂᆞᆫ ᄆᆞᄋᆞᆷ을 인홈이라 이로써 돗ᄂᆞᆫ히가 우흐로브 터 우리게 림ᄒᆞ야<1906누가0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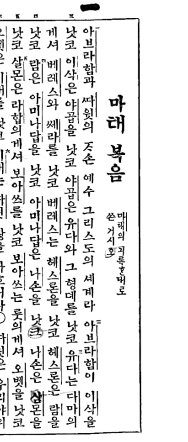
ㅅ. 此는 我等 上帝의 矜恤ᄒᆞ시ᄂᆞᆫ 心을 因홈이라 此로써 出ᄒᆞᄂᆞᆫ 日이 上으로브터 我等의게 臨ᄒᆞ야<1906누가01:78>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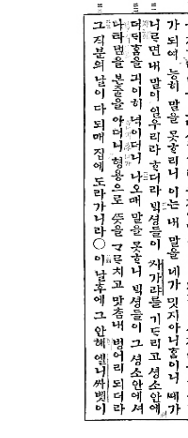
(6ㅁ), (7ㅁ), (8ㅁ)의 『신약젼셔』(1905)는 연세대학교 소장의 『신약젼셔』(1904)인데 앞표지의 '구쥬강싱 일쳔구빅스년'을 빨간색으로 '구쥬강싱 일쳔구빅오년'이라고 수정하였기 때문에 1905년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904년(임시역)본을 1905년에 수정하였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음은 빨간색 펜의 수정 흔적을 볼 수 있는 『신약젼셔』(1905)의 대표적인 면을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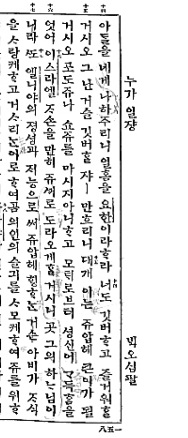
<그림1> 『신약젼셔』(1905) 마태복음 1장



<그림2> 『신약젼셔』(1905) 마가복음 3장



<그림3> 『신약젼셔』(1905) 누가복음 1장



<그림4> 『신약젼셔』(1905) 누가복음 4장

www.kci.go.kr

<그림1>~<그림4>는 대비 대상 번역본을 직접 입력한 필자의 견해로, 각 복음서의 수정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면들이다. 누가복음은 4장 이후부터 빨간색 수정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마태복음에 비하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아주 조금씩만 수정한 흔적이 보인다. 특이한 것은 이『신약젼셔』(1905)는 사도행전까지만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신약젼셔』(1905)가 켄뮤어가 일본에 갔다가 잠시 서울에 오면서 가져온 1차 인쇄본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켄뮤어 서신(1904년 7월 13일)의 일부이다.

I have to inform you of my temporary return to Seoul after putting the Gospels and Acts through the press.

My object in going to Yokohama was to start the new editions: I did not contemplate a long stay. But very soon I found that owing to the condition of the copy as supplied to me by the Board a great deal more required to be done than I had any right to anticipate. In the end I stayed until, as I say, I had printed the Gospels and Acts of which we were in the greatest need.

<그림 5>『신약젼셔』(1905)와 관련되어 보이는 켄뮤어의 서신

위 서신의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켄뮤어는 당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복음서와 사도행전만을 일본에서 우선적으로 인쇄하여 서울에 가지고 왔고, 이것이 현재 연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만 인쇄된『신약젼셔』(1905)일 것으로 보인다.

3.『신약젼셔』의 번역과 수정 및 출판 과정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에서는 개신교와 교회가 급성장하며 성서의 수요가 급증하였다.『신약젼셔』(1900)는 꾸준히 개인역이 간행되던 상황에서 상임실행성서위원회의 이름으로 출판된 성서이긴 하나 그 본질은 개인역의 합본 수준이었다. 1900년 시험역은 복음서만 공동 번역 작업이 되었을 뿐, 사도행전을 비롯한 서신서들 대부분이 개인역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교정 작업을 해야 했다. 그러나 시기적

www.kci.go.kr

으로 번역자회의 여러 상황(아펜셀러의 순직, 천주교인들의 개신교 박해 사건(해서교안), 게일의 휴가, 레널즈의 주택 건축 등)과 겹쳐 성서위원회의 번역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연기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신약전서가 급속도로 매진되는 상황이었다. 켄뮤어 서신(1904년 5월 31일)에서는 러·일 전쟁의 상황이 한국인들의 신심(信心)을 북돋우고, 교회의 부흥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신약젼셔』(1900, 1904, 1906)의 공관 복음을 1장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대비해 살펴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1900년 번역본(시험역)과 1904년 번역본(임시역)이 유사하며, 마태복음은 1904년 번역본과 1906년 번역본(공인역)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00년본의 간행과 그 이후의 수정 과정과 관련된다. 1904년본의 출판을 위한 수정 및 인쇄 과정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원고가 1900년본 것으로 잘못 전해졌다는 켄뮤어 서신(1905년 1월 13일)을 참고해보면 이해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누가복음 중에서도 1900년본과 1904년본이 다른 부분들이 확인되기도 한다.

(9) ㄱ. 그 즁에 ᄒᆞᆫ 사람이 제ᄉᆞ졔쟝의 죵을 쳐 그 올흔편 귀를 짝그니<1900_개화기/대전집_누가22:50>
ㄴ. 그 즁에 ᄒᆞᆫ 사ᄅᆞᆷ이 대졔ᄉᆞ쟝의 죵을 쳐 그 올흔편 귀를 짝근ᄃᆡ<1904누가22:50>
ㄷ. 그 즁에 ᄒᆞᆫ 사ᄅᆞᆷ이 졔ᄉᆞ쟝의 죵을 쳐 그 올흔편 귀를 짝근지라<1906누가22:50>
ㄹ. 其 中에 一 人이 祭司長의 僕을 擊ᄒᆞ야 其 右便 耳를 削ᄒᆞᆫ지라<1906누가22:50>

(10) ㄱ. 소리ᄅᆞᆯ 놉혀 ᄀᆞᆯᄋᆞᄃᆡ 예수 션싱님이여 우리ᄅᆞᆯ 긍휼ᄒᆞ쇼셔 ᄒᆞ니<1900_대전집/개화기_누가17:13>
ㄴ. 소리를 놉혀 ᄀᆞᆯᄋᆞᄃᆡ 션싱님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녁이쇼셔 ᄒᆞ니<1904누가17:13>
ㄷ. 소리를 놉혀 ᄀᆞᆯᄋᆞᄃᆡ 예수 션싱님이여 우리를 긍휼이녁이쇼셔 ᄒᆞ니<1906누가17:13>
ㄹ. 聲을 高ᄒᆞ야 曰 예수 先生님이여 我等을 矜恤히녁이쇼셔 ᄒᆞ니<1906누가17:13>

www.kci.go.kr

켄뮤어 서신대로, 수정되지 않은 1900년본 누가복음을 받았고, 번역자회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라면, (9ㄴ), (10ㄴ)과 같은 수정은 켄뮤어의 작업이었을 것이다.

『신약젼셔』(1904) 출판을 준비하던 당시 영국 성서공회의 한국지부 초대 총무로 파견된 켄뮤어는 출판비 절감을 위해 요코하마 복음인쇄소에 새 판본의 인쇄를 맡겼고, 1903년 8월 중순 경 일본으로 직접 가서 새 철자법과 세부 사항들의 교정과 인쇄 작업을 책임졌다[7]. 그러나 1904년 2월 러일 전쟁의 발발로 일본 정부가 우편 선박들을 전쟁 수송용으로 차출하여 우편 업무가 정상이 아닌 상태였기에 출판 시기가 늦어져 1904년 출판 계획은 계속 연기되는 상황이었고, 1904년 5월 중순 켄뮤어는 직접 일본으로 가서 장기 체류하며 출판의 전 과정을 살핀 것이다(1904년 5월 31일 서신). 그 결과『신약젼셔』의 일차 수정판은 1904년 11월 23일 4호판본(14point)으로 마무리되었다[8]. 12월 21일 이후 개정 교정지가 인쇄공에게 넘어갔고, 4호 활자『신약젼셔』(1904)를 선적하고 1월 6일 한국에 도착하여 새『신약젼셔』(1904)를 배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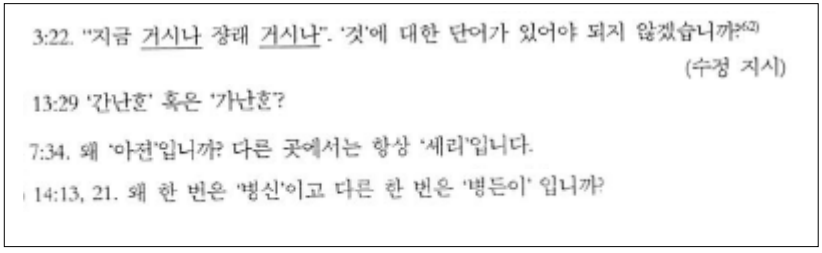
켄뮤어는 번역-교정-출판에 관한 일을 30년 이상 해온 사람으로서 자기 확신과 자부심이 큰 책임자였다. 일본의 인쇄공에게 완벽한 상태의 원고를 보내고자 직접 철저하게 확인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의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 켄뮤어 서신에 제시된 구체적인 지적 및 수정 사항들(1904년 4월 29일, 7월 13일)을 보면, 그는 성경 내부적인 일관성과 성경 관련 외래어 및 전문어의 통일성이나 생략 등으로 인한 의역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에 주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7) 이 때의 일본 방문은 특별 출장이었고, 10월에 돌아와 평양에서 개최된 북장로교선교회에서 철자 개혁 문제를 시기 상조로 결정하여 구철자법을 따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켄뮤어(1903년 10월 16일)는 자체 조사 결과 남북의 오해의 근원을 찾았다고 쓰고 있다. 서울의 번역자회는 신문이 발간되고 예수교서회가 본부를 두고 있는 서울에서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새철자법안을 결정하였는데 후에 북부 지역에 알려지자 비판이 일었다. 까닭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글 철자법을 마음대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인들이 비판하였다는 것이다.

8) 신약전서는 두 가지 새로운 판본을 출판하기로 회의에서 처리되었고(켄뮤어 서신 2006, 1903년 7월 27일), 소형 활자본(5호:10.5point)을 나중에 인쇄하기로 한 것이다.

www.kci.go.kr


3:22. "지금 거시나 장래 거시나". '것'에 대한 단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42]
(수정 지시)
13:29 '간난흔' 혹은 '가난흔'?
7:34. 왜 '아젼'입니까? 다른 곳에서는 항상 '세리'입니다.
14:13, 21. 왜 한 번은 '병신'이고 다른 한 번은 '병든이' 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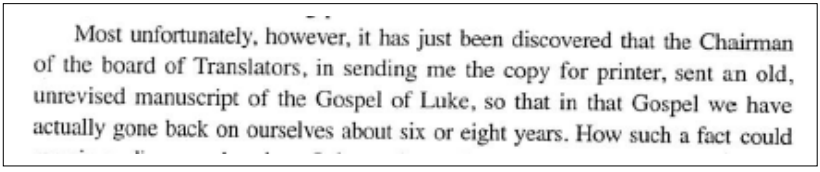
<그림 6> 번역 오류에 대한 켄뮤어의 질문지의 일부

켄뮤어가 번역자회에 제출한(1904년 7월 7일) 질문 목록 중 일부인데 당시 한국어의 일반적 표기나 어휘 혼용의 문제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번역 성경의 체계를 위한 의식적 자세인지, 현실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4호가 출판되는 동안 번역자회는 개정 철자를 따르기로 한 반면, 장로회공의회가 구철자법을 고수하기로 결정하는 바람에[9] '마가-누가복음' 원고가 초기 원고로 발송되고 말았다는 것을 켄뮤어는 나중에 알게 된다(켄뮤어 보고서 1905년 2월11일). 또, 4호 활자 『신약젼셔』(1904)에는 한국어를 모르는 일본의 식자공이 범한 실수('ㆍ'를 'ㅡ'로, 'ㅅ'을 'ㅈ'으로, 'ㅈ'을 'ㄱ'으로, 'ㅁ'을 'ㅂ'으로 조판)가 많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된다. 그러한 현실에서 켄뮤어는 출판 중이었던 5호 활자본(10.5point)의 인쇄를 중단시켰다. 다음은 켄뮤어 서신(1905년 1월 3일)의 내용이다.

9) 성서공회의 모든 출판물을 게일이 제안한 새 철자법으로 인쇄하기로 결정하였다가(켄뮤어 서신 2006, 1903년 7월 27일 상인실행성서위원회 회의), 다시 새 판본을 지금까지 사용해 온 구철자로 인쇄하기로 결정하여(켄뮤어 서신 2006, 1903년 10월 6일) 일본에서의 인쇄가 중지되었다. 구철자로 환원하기로 한 결정 때문에 신약전서의 모든 원고를 재필사(再筆寫)해야 했다. 1903년 11월 30일 서신에서야 '마침내 신약전서 새 판본을 위한 최종 원고를 받아 인쇄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www.kci.go.kr


Most unfortunately, however, it has just been discovered that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Translators, in sending me the copy for printer, sent an old, unrevised manuscript of the Gospel of Luke, so that in that Gospel we have actually gone back on ourselves about six or eight years. How such a fact could

<그림 7> 1904년본의 누가복음 원고에 대한 켄뮤어 서신

<그림 7>과 같은 서신으로 켄뮤어는 활자상 오류의 많은 부분이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에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번역자회의 오도(誤導)임(1905년 2월 11일 서신)을 분명히 하며 소활자 신약전서의 출판을 포기하고, 새로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원고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결국, 성서공회의 초대 총무였던 켄뮤어는 신경 쇠약에 걸려 1905년(5월 18일 서신) 한국을 떠나고 말았다. 켄뮤어는 공인역본『신약젼셔』가 출판되기까지 가장 열정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준 선교사이다. 그러나 켄뮤어가 국한혼용문 신약전서의 출판을 반대하여(1903년 12월 22일 서신) 한국에서의 국한혼용문 성서는, 1903년 일차적으로 원고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켄뮤어가 떠난 후, 1906년이 되어서야 출판된다.

4. 어휘의 수정과 생략, 그리고 어순의 문제[10]

본 장에서는 그동안의 논의들에서 한 번도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신약젼셔』(1904)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완역본이 어떤 과정으로 수정되었는지, 이것이 현대 한국어 번역 성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다만,

10) 심사서를 보내주신 한 분께서 '한국어 번역 성경은 미개척 연구 영역이므로 어휘의 교체, 생략, 첨가, 어순 변형 외에 국어학적으로 고찰될 부분들을 설명하여 뒤이을 연구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하셨다. 한국어 번역 성경은 근대계몽기의 문체 문제, 방언형과 관련된 음운론적 문제, 외국어 표기 문제 등 국어학, 특히 근대국어 연구의 전 영역에 걸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고에서는 어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필자는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한국어 번역 성경의 문체, 음운론적 문제들을 다룬 바가 있기에 본고에서는 다른 영역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한다.

www.kci.go.kr

142,000 여 어절의 대비 결과를 모두 보일 수 없어 대표적인 예들을 선별하여 『신약젼셔』의 전반적인 특징들을 설명한다. 각 번역본을 대상으로 복음서별, 언어 영역별 대비 연구에 대한 더 구체적인 연구들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1. 외국어 번역상의 문제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는 시대별, 지역별, 문체별 요인에 의한 언어 차이 외에 외국어 번역상의 문제들이 확인되는데, 주로 '가-, 오-'와 관련된 어휘와 지시어에 관련된 어휘에서 확인된다.

(11) ㄱ. 온 유대 짜와 예루살넴 사룸이 다 나아가 각각 제죄를 안다ᄒᆞ고 요단강에셔 셰례를 요한의게 밧더라<대전집1900/개화기1900마가01:05>
ㄴ. 온 유대 짜와 예루살넴 인이 다 나와 각각 제죄를 안다ᄒᆞ고 요단강에셔 요한의게 셰례를 밧더라<1904마가01:05>
ㄷ. 왼 유대 짜와 예루살넴 사룸이 다 나아가 각각 제죄를 ᄌᆞ복ᄒᆞ고 요단강에셔 요한의게 셰례를 밧더라<1906마가01:05>
ㄹ. 왼 유대 地와 예루살넴 人이 皆 就ᄒᆞ야 各各 渠罪를 自服ᄒᆞ고 요단江에셔 요한의게 洗禮를 受ᄒᆞ더라<1906마가01:05>

(12) ㄱ. 맛참 그 때에 긔살아구스토가 텬하사룸의게 죄세ᄒᆞ여 호젹올 올니ᄂᆞᆫ디 <1887누가02:01>
ㄴ. 맛춤 이 때에 가이사어구스도가 령을 ᄂᆞ려 텬하로 ᄒᆞ여곰 다 호젹에 올니게 ᄒᆞ니<1900누가02:01>
ㄷ. 맛춤 이 때에 가이사아구사도가 령을 ᄂᆞ려 텬하로 ᄒᆞ여곰 다 호젹을 올니게 ᄒᆞ니<1904누가02:01>
ㄹ. 맛춤 이 때에 가이사아구스도가 령을 ᄂᆞ려 텬하로 ᄒᆞ여곰 다 호젹ᄒᆞ라 ᄒᆞ니<1906누가02:01>
ㅁ. 맛춤 此 時에 가이사아구스도가 令을 下ᄒᆞ야 天下로 ᄒᆞ여곰 다 戶籍ᄒᆞ라 ᄒᆞ니<1906누가02:01>

(13) ㄱ. 이때에 셔샤관과 졔ᄉᆞ졔쟝들이 예수ㅣ 이 비유를 ᄒᆞ야 ᄌᆞ긔를 ᄀᆞᄅᆞ치ᄂᆞᆫ 줄을 알고 말을 잡고져ᄒᆞ디 빅셩을 두려워ᄒᆞᄂᆞᆫ지라<1900누가20:19>
ㄴ. 곳그때에 셔긔관과 졔ᄉᆞ졔쟝들이 예수를 잡고져홈은 이 비유를 ᄒᆞ여 ᄌᆞ긔

www.kci.go.kr

를 ᄀᆞᄅᆞ치는 줄 앎이나 빅셩을 두려워ᄒᆞᄂᆞᆫ지라<1904누가20:19>
ㄷ. 이ᄯᅢ에 셔긔관과 졔ᄉᆞ졍쟝이 예수가 이 비유로 ᄌᆞ긔를 ᄀᆞᄅᆞ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져 ᄒᆞ되 빅셩을 두려워ᄒᆞ더라<1906누가20:19>
ㄹ. 此時에 書記官과 祭司諸長이 예수가 此 譬喩로 自己를 指ᄒᆞ신 줄을 知ᄒᆞ고 卽時 執ᄒᆞ고져 ᄒᆞ되 百姓을 畏ᄒᆞ더라<1906누가20:19>

(14) ㄱ. 션지 이ᄉᆡ야 써사되 보라 ᄂᆡ가 ᄂᆡ의 사쟈를 너희 압페 보ᄂᆡ여 너희 길을 예비ᄒᆞ고<1887마가01:02>
ㄴ. 션지쟈 이ᄉᆡ야의 긔록ᄒᆞᆫ 말ᄉᆞᆷ에 ᄇᆞᆯ지어다 내가 내 ᄉᆞ쟈를 네 압희 보내여 네 길을 예비ᄒᆞ리니<개화기1900마가01:02>
ㄷ. 션지쟈 이ᄉᆡ야의 긔록ᄒᆞᆫ 말ᄉᆞᆷ에 ᄇᆞᆯ지어다 내가 내 ᄉᆞ쟈를 네 압희 보내여 네 길을 예비ᄒᆞ리니<대전집1900마가01:02>
ㄹ. 션지쟈 이새야의 긔록ᄒᆞᆫ 말ᄉᆞᆷ에 ᄀᆞᆯᄋᆞ딕 ᄇᆞᆯ지어다 내가 내 ᄉᆞ쟈를 네 압헤 보내여니 더가 네 길을 예비ᄒᆞ리라<1904마가01:02>
ㅁ. 션지쟈 이사야의 긔록ᄒᆞᆫ 말ᄉᆞᆷ에 ᄇᆞᆯ지어다 내가 내 ᄉᆞ쟈를 네 압헤 보내리니 더가 네 길을 예비ᄒᆞ리라<1906마가01:02>
ㅂ. 先知者 이사야의 記錄ᄒᆞᆫ 言에 見ᄒᆞᆯ지어다 我가 我의 使者를 爾의 前에 遣ᄒᆞ리니 彼가 爾의 道를 預備ᄒᆞ리라<1906마가01:02>

(11)은 '가-'와 '오-'의 혼재상을 볼 수 있는 예이고, (12)~(14)는 번역문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지시어의 혼재 양상이다. (14)는 임시역본(1904)에서 대명사 '뎌가'가 추가되어 문장의 의미가 분명해졌고, 이후 현대 한국어 성경 번역에까지 대명사가 첨가되어 번역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38년 개역본, 1952년『성경전서 개역한글판』까지도 '뎌/저가'로 번역되고, 1998년『성경전서 개역개정』에서 '그가'로 번역되었다. 이는 근대 국어를 거치며 외국어 번역의 영향으로 '저'와 '그'의 동의 경쟁에서 '그'가 남게 된 결과이다(유경민, 2005:189-191).

4.2. 어휘의 교체

시험역본, 임시역본, 공인역본에서의 어휘의 수정 및 교체는 '고유어 對 고유어', '고유어 對 한자어', '한자어 對 한자어' 관계에서 다양하게 확인된다. 일반적인 편견과는 달리 성경에서만 확인되는 전문어[11]는 많지 않다.

www.kci.go.kr

(15) ㄱ. 처녀가 잉틱ᄒᆞ야 아들을 나흐리니 일홈은 임마누엘이라 ᄒᆞ리라 ᄒᆞ시니 번역ᄒᆞᆫ즉 하ᄂᆞ님이 우리와 홈끠 계시다 홈이라<1900마태01:23>
ㄴ. 볼지어다 동정녀가 잉틱ᄒᆞ야 아들을 나흐리니 일홈은 임마누엘이라 ᄒᆞ리라 ᄒᆞ시니 번역ᄒᆞᆫ즉 하ᄂᆞ님이 우리와 홈끠 계시다홈이라<1904마태01:23>
ㄷ. 볼지어다 동정녀가 잉틱ᄒᆞ야 아들을 나흐리니 일홈은 임마누엘이라 ᄒᆞ리라 ᄒᆞ시니 번역ᄒᆞᆫ즉 하ᄂᆞ님이 우리와 홈끠계시다 홈이라<1906마태01:23>
ㄹ. 見ᄒᆞᆯ지어다 童貞女가 孕胎ᄒᆞ야 子를 生ᄒᆞ리니 名은 이마누엘이라 ᄒᆞ리라 ᄒᆞ시니 譯ᄒᆞᆫ則 上帝가 我等과 同在ᄒᆞ시다 홈이라<1906마태01:23>

1900년본에서는 생략된 '볼지어다'가 1904년본 이후의 모든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는 확인된다. 일본의 인쇄소에 가서 1904년본의 출판과 교정 작업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켄뮤어는 초기 번역본들에서 생략되었던 부분들을 되살려 성경의 성분절 수를 맞추는 것을 중시하였다(켄뮤어 서신 7월 13일). 그 결과 직역을 원칙으로 하는 성경 번역의 기본 틀이 한국어 성경에 갖추어졌고, 1904년본에서 수정된 부분들은 현대까지 이어져 한국어 번역 성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녀'와 '동정녀'의 대응과 같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어휘 선택의 문제에서는 지속적으로 고민과 변화가 가해지는 것을 『신약젼셔』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06년 공인역본에서 '동정녀'로 확정되어 표현된 것이 1938년 개역본부터 다시 '처녀'로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6) ㄱ.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죽엄 잇ᄂᆞᆫ 곳에 ᄆᆡ가 반ᄃᆞ시 모히ᄂᆞ니라 ᄒᆞ시더라<1900누가17:37>
ㄴ. ᄃᆡ답ᄒᆞ여 ᄀᆞᆯᄋᆞ샤ᄃᆡ 죽음이 잇ᄂᆞᆫ 곳에 ᄆᆡ가 반ᄃᆞ시 모히ᄂᆞ니라 ᄒᆞ시더라<1904누가17:37>
ㄷ.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죽엄 잇ᄂᆞᆫ 곳에는 독슈리가 0 모히ᄂᆞ니라 ᄒᆞ시더라<1906누가17:37>
ㄹ. 答ᄒᆞ야 曰 屍가 在ᄒᆞᆫ 處에는 鷲가 0 集ᄒᆞᄂᆞ니라 ᄒᆞ시더라<1906누가17:37>

(17) ㄱ. 요셉이 잠을 ᄭᆡ여 니러나셔 쥬의 텬ᄉᆞ의 분부대로 안히를 다려 오니<1900마

11)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 확인되는 전문어와 일상어에 대한 계량적 연구는 별도로 준비 중이다.

www.kci.go.kr

태01:24>

ㄴ. 요셉이 잠을 찌여 니러나셔 쥬의 스쟈의 분부대로 힝ᄒᆞ여 안해를 ᄃᆞ려왓스나<1904마태01:24>

ㄷ. 요셉이 잠을 찌여 니러나셔 쥬의 스쟈의 분부대로 힝ᄒᆞ야 안히를 다려왓스나<1906마태01:24>

ㄹ. 요셉이 睡를 覺ᄒᆞ야 起ᄒᆞ야 主의 使者의 吩咐대로 行ᄒᆞ야 妻를 親迎來ᄒᆞ엿스나<1906마태01:24>

(18) ㄱ. 빅합쏫치 엇더케 자ᄅᆞ는거슬 싱각ᄒᆞ라 뎌 슈고도 아니ᄒᆞ고 질삼도 아니ᄒᆞᄂᆞ니라 그러나 나ㅣ 너ᄃᆞ려 닐ᄋᆞ노니 곳 솔노문이 영화가 극진ᄒᆞᆯ 때에도 그옷시 오히려 이 쏫 ᄒᆞ나만 ᄀᆞᆺ지 못 ᄒᆞ니라<1900누가12:27>

ㄴ. 빅합쏫이 엇더케 ᄌᆞ라는거슬 싱각ᄒᆞ라 뎌ㅣ 슈고도 아니ᄒᆞ고 길숨도 아니ᄒᆞᄂᆞ니라 그러나 나ㅣ 너ᄃᆞ려 닐ᄋᆞ노니 곳 솔노몬이 영화가 극진ᄒᆞᆯ 때에도 그옷시 오히려 이 쏫 ᄒᆞ나만 ᄀᆞᆺ지 못ᄒᆞ엿ᄂᆞ니라<1904누가12:27>

ㄷ. 빅합화가 엇더케 자라는가 싱각ᄒᆞ야보아라 0 슈고도 아니ᄒᆞ고 길삼도 아니ᄒᆞᄂᆞ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게 말ᄒᆞ노니 0 솔노몬의 지극ᄒᆞᆫ 영광으로도 닙은거시 0 이 쏫 ᄒᆞ나만 ᄀᆞᆺ지 못ᄒᆞ엿ᄂᆞ니라<1906누가12:27>

ㄹ. 百合花가 如何케 長ᄒᆞ는가 思ᄒᆞ야보라 0 受苦도 아니ᄒᆞ고 紡績도 아니ᄒᆞᄂᆞ니라 然ᄒᆞ나 我가 爾等의게 言ᄒᆞ노니 0 솔노몬의 至極ᄒᆞᆫ 榮光으로도 衣ᄒᆞᆫ거시 0 此 花 一만 如치 못ᄒᆞ엿ᄂᆞ니라<1906누가12:27>

위의 예에서 ‘ᄆᆡ’과 ‘독슈리’, ‘텬ᄉᆞ’와 ‘ᄉᆞ쟈’, ‘안게ᄒᆞ-’와 ‘안치-’, ‘영화’와 ‘영광’, ‘극지ᄒᆞ-’와 ‘지극ᄒᆞ-’가 대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대응 어휘의 교체 및 수정은 대부분 1906번역본의 것이 1938년 개본역본에서도, 현대 한국어 성경에서도 확인된다. 개인역본들이 조합된 1900년본『신약젼셔』후의 번역본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참여와 외국어 성경과의 대역이 활발해지면서 전체 어절 수 맞추기나 분절, 성경 내적인 통일성 등은 체계가 잡혔으나 한국어 개별 어휘의 선정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수정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19) ㄱ. 예수를 **풍문ᄒᆞ고** 유ᄃᆡ댱노덜을 보ᄂᆡ여와 그 죵 곳티믈 구ᄒᆞ니<1882누가07:03>

ㄴ. 예수를 풍문ᄒᆞ고 유ᄃᆡ쟝로수인을 보내여와셔 그 죵 곳침을 구ᄒᆞ라ᄒᆞ니<1890누가07:03>

www.kci.go.kr

ㄷ. 예수를 풍문ᄒᆞ고 유디쟝로수인을 보내여와셔 그 죵 곳침을 구ᄒᆞ라ᄒᆞ니 <1893누가07:03>
ㄹ. 풍편으로 예수를 듯고 곳 유다쟝로 두어사ᄅᆞᆷ을 보내여 오샤 그 병을 곳쳐주시기를 구ᄒᆞ니<1895누가07:03>
ㅁ. 풍편으로 예수를 듯고 곳 유대인의 쟝로 두어 사ᄅᆞᆷ을 보내여 오샤 그 죵을 구ᄒᆞ시기를 쳥ᄒᆞ니<1898누가07:03>
ㅂ. 풍편으로 예수를 듯고 곳 유대인의 쟝로 두어사ᄅᆞᆷ을 보내여 오샤 그 죵을 구ᄒᆞ시기를 쳥ᄒᆞ니<1900누가07:03>
ㅅ. 풍편으로 예수를 듯고 곳 유대인의 쟝로 두어사ᄅᆞᆷ을 보내여 그 죵을 구원하려오시기를 쳥ᄒᆞ니<1904누가07:03>
ㅇ. 예수의 소문을 듯고 곳 유대인의 쟝로 두어사ᄅᆞᆷ을 보내여 오서셔 그 죵을 구ᄒᆞ시기를 쳥ᄒᆞ니<1906누가07:03>
ㅈ. 예수의 所聞을 듯고 곳 유대人의 長老 數人을 遣ᄒᆞ야 來ᄒᆞ야 其 僕을 救援ᄒᆞ시기를 請ᄒᆞ니<1906누가07:03>

(19)에서는 '풍문ᄒᆞ-', '풍편으로 듯-', '소문을 듯-'이 교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약젼셔』 전반적으로 볼 때, 1900(시험)역본1904(임시)역본에서의 '풍편으로 듯-'이나 '~고 곳(卽)' 등과 같은 한문투 문어 표현이 1906(공인)역본에서 구어에 가깝게 수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0) ㄱ. ᄒᆞᆫ계집죵이베드로ㅣ불을향ᄒᆞ야안진거슬보고 다시 똑똑이 보아 ᄀᆞᆯᄋᆞ딕 이 사ᄅᆞᆷ이 그와 ᄒᆞᆫ가지로 ᄃᆞᆫ닌 사ᄅᆞᆷ이라 ᄒᆞ니<1900누가22:56>
ㄴ. 베드로ㅣ불 빗헤안즌거슬ᄒᆞᆫ계집죵이보고 다시 똑똑이 보아 ᄀᆞᆯᄋᆞ딕 이 사ᄅᆞᆷ이 그와 ᄒᆞᆫ가지로ᄃᆞᆫ닌 사ᄅᆞᆷ이라 ᄒᆞ니<1904누가22:56>
ㄷ. ᄒᆞᆫ계집죵이베드로가불을향ᄒᆞ야안즌거슬보고 주목ᄒᆞ야 ᄀᆞᆯᄋᆞ딕 이 사ᄅᆞᆷ이 그와 ᄒᆞᆫ가지로ᄃᆞᆫ닌 사ᄅᆞᆷ이라 ᄒᆞ니<1906누가22:56>
ㄹ. 一婢가베드로가火를向ᄒᆞ야坐ᄒᆞᆫ거슬見ᄒᆞ고 注目ᄒᆞ야 曰 此 人이 그와 同行ᄒᆞᆫ 人이라 ᄒᆞ니<1906누가22:56>

(21) ㄱ. 동침치 안코 아달을 나으메 밋처 일홈을 칭ᄒᆞ여 예수라 ᄒᆞ다라<1887마태01:25>
ㄴ. 아ᄃᆞᆯ 낫키ᄭᅳ지 안히로 알지 아니ᄒᆞ고 일홈을 예수ㅣ라 ᄒᆞ엿ᄂᆞ니라<개화기1900마태01:25>
ㄷ. 아ᄃᆞᆯ 낫키ᄭᅳ지 안히로 알지 아니ᄒᆞ고 일홈을 예수ㅣ라 ᄒᆞ엿ᄂᆞ니라<대전집

www.kci.go.kr

1900마태01:25>

ㄹ. 동침ᄒᆞ지 아니ᄒᆞ고 아돌을 나흐매 일홈을 예수ㅣ라 ᄒᆞ니라<1904마태01:25>

ㅁ. 아돌을 낫키ᄭᅳ지 동침치 아니ᄒᆞ더니 나흐매 일홈을 예수라 ᄒᆞ니라<1906마태01:25>

ㅇ. 子를 生ᄒᆞ기ᄭᅳ지 同寢치 아니ᄒᆞ더니 生ᄒᆞ매 名을 예수라 ᄒᆞ니라<1906마태01:25>

(22) ㄱ. 너희롤 ᄃᆡ졉지 아니ᄒᆞᄂᆞᆫ 쟈ㅣ 잇거든 그 읍ᄂᆡ셔 나올 ᄯᅢ에 너희 발에 몬지롤 ᄯᅥ러ᄇᆞ려 그들의게 증거롤 삼으라 ᄒᆞ시니<1900누가09:05>

ㄴ. 너희를 졉ᄃᆡ치 아니ᄒᆞᄂᆞᆫ 쟈ㅣ 잇거든 그 읍ᄂᆡ셔 나올 ᄯᅢ에 너희 발에 몬지를 ᄯᅥ러ᄇᆞ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ᄒᆞ시니<1904누가09:05>

ㄷ. 누구던지너희를 ᄃᆡ졉지 아니ᄒᆞ거든 그 셩에셔 ᄯᅥ날 ᄯᅢ에 너희 발에 몬지도 ᄯᅥ러ᄇᆞ려 뎌희의게 증거를 삼으라 ᄒᆞ시니<1906누가09:05>

ㄹ. 誰던지爾等을 待接지 아니ᄒᆞ거든 其 城에셔 離ᄒᆞᆯ 時에 爾等의 足에 塵도 拂去ᄒᆞ야 彼等의게 證據를 삼으라 ᄒᆞ시니<1906누가09:05>

(23) ㄱ. 어나읍ᄂᆡ에 드러가던지 너희롤 영졉지 아니ᄒᆞ거든 곳 그 거리로 나와셔 ᄀᆞᆯᄋᆞ디<1900누가10:10>

ㄴ. 어ᄂᆞ읍ᄂᆡ에 드러가던지 너희를 영졉지 아니ᄒᆞ거든 곳 그 거리로 나와셔 ᄀᆞᆯᄋᆞ디<1904누가10:10>

ㄷ. 어ᄂᆞ셩에 드러가던지 너희를 ᄃᆡ뎝지 아니ᄒᆞ거든 곳 그 거리로 나와셔<1906누가10:10>

ㄹ. 何城에 入ᄒᆞ던지 爾等을 待接지 아니ᄒᆞ거든 곳 其 街로 出ᄒᆞ야<1906누가10:10>

(20)에서는 '다시 똑똑이 보-'를 '주목ᄒᆞ-'로 수정하였고, (21)에서는 '안히로 알지 아니ᄒᆞ-'를 '동침치 아니ᄒᆞ-'로 수정하면서 어순도 바꾼 것을 볼 수 있다. (22)에서는 'ᄃᆡ졉ᄒᆞ-'와 '졉ᄃᆡᄒᆞ-'가 같이 쓰이고 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두 단어가 동의어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화용론적으로는 '대접하-'와 '접대하-'의 의미 차이는 더욱 크다. (23)에서는 '영졉'을 'ᄃᆡ뎝'으로 수정하였는데, 이 시기 'ᄃᆡ졉', '졉ᄃᆡ', '영졉'의 의미 관계에도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러한 어휘 사용상의 특징은 한국어 번역 성경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 대비 과정에 있어서 성경 자료만큼 분명하

www.kci.go.kr

고 구체적인 자료가 많지 않다는 데에 성경 문헌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3. 어순

어순의 수정은 대부분 부사와 부사격조사가 나타나는 부분에서 많이 확인되고, 현대의 번역문들에서처럼 주제화나 초점화를 위한 어순 변형 및 수정은 드물다.

(24) ㄱ. 닐곱재ᄯᅴ지 그러ᄒᆞ야 다 ᄌᆞ식이 업시 죽고<1900누가20:31>
ㄴ. 닐곱재ᄯᅴ지 그러ᄒᆞ여 다 ᄌᆞ식이 업시 죽고<1904누가20:31>
ㄷ. 닐곱이 다 그리ᄒᆞ야 ᄌᆞ식 업시 죽고<1906누가20:31>
ㄹ. 七人이 皆 然ᄒᆞ야 子息 업시 死ᄒᆞ고<1906누가20:31>

(25) ㄱ. 그 후에 ᄯᅩ 녀인이 죽엇ᄂᆞᆫ지라<1900누가20:32>
ㄴ. 그 후에 ᄯᅩ 녀인이 죽엿ᄂᆞᆫ지라<1904누가20:32>
ㄷ. 그 후에 녀인이 ᄯᅩ 죽엇ᄂᆞᆫ지라<1906누가20:32>
ㄹ. 其 後에 女人이 亦 死ᄒᆞ엿ᄂᆞᆫ지라<1906누가20:32>

(26) ㄱ. 서로 이 된 거슬 의론ᄒᆞ더니<1900누가24:14>
ㄴ. 서로 이 된 거슬 의론ᄒᆞ더니<1904누가24:14>
ㄷ. 이 모든 일 된 거슬 서로의론ᄒᆞ더니<1906누가24:14>
ㄹ. 此 諸事의 成ᄒᆞᆫ 거슬 相議ᄒᆞ더니<1906누가24:14>

(27) ㄱ. 이 너희 보ᄂᆞᆫ 거슬 날이 니ᄅᆞᆯ 거시니 0 돌 우헤 ᄲᅵ친돌이문허지지아닌거ᄉᆞᆫ업ᄉᆞ리라 ᄒᆞ시거ᄂᆞᆯ<1900누가21:06>
ㄴ. 너희 보ᄂᆞᆫ 이거슨 날이 니ᄅᆞᆯ 거시니 0 돌 우헤 ᄲᅵ친돌이문허지지아니ᄒᆞᆯ거시 업시리라 ᄒᆞ시거늘<1904누가21:06>
ㄷ. 너희 보ᄂᆞᆫ 이거시 날이 니르면 돌ᄒᆞ나도 돌 우헤 텹노히지안코다문허지리라 ᄒᆞ시거ᄂᆞᆯ<1906누가21:06>
ㄹ. 爾等의 見ᄒᆞᄂᆞᆫ 此殿이 日이 至ᄒᆞ면 石一塊도 石 上에 疊노히지안코盡壞ᄒᆞ리라 ᄒᆞ시거늘<1906누가21:06>

(24)~(2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皆]', 'ᄯᅩ[亦]', '서로[相]' 등의 부사의

www.kci.go.kr

위치를 서술어 가까이로 수정해온 것을 알 수 있다. (27)의 '이 너희 보는 것'을 '너희 보는 이것'으로 수정한 것도, '이', '그, 저'의 위치 변화를 볼 수 있는 예인데, 모두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위치를 가깝게 두는 방향성을 가지고 수정되어온 것이다.

(28) ㄱ. 무리ᄃᆞ려 닐ᄋᆞ시ᄃᆡ 탐심을 삼가고 조심ᄒᆞ라 대개 사ᄅᆞᆷ의 사ᄂᆞᆫ 거시 그 가산 넉넉ᄒᆞᆫ ᄃᆡ 잇지 아니ᄒᆞ니라 ᄒᆞ시고<1900누가12:15>
ㄴ. 무리ᄃᆞ려 닐넛스ᄃᆡ 탐심을 삼가고 조심ᄒᆞ라 대개 사ᄅᆞᆷ의 사ᄂᆞᆫ 거시 그 가산 넉넉ᄒᆞᆫ ᄃᆡ 잇지 아니ᄒᆞ니라 ᄒᆞ시고<1904누가12:15>
ㄷ. 무리ᄃᆞ려 닐ᄋᆞ샤ᄃᆡ 삼가 모든 탐심을 물니치라 대개 사ᄅᆞᆷ의 사ᄂᆞᆫ 거시 그 가산 넉넉ᄒᆞᆫ ᄃᆡ 잇지 아니ᄒᆞ니라 ᄒᆞ시고<1906누가12:15>
ㄹ. 衆ᄃᆞ려 謂ᄒᆞ샤ᄃᆡ 愼ᄒᆞ야 諸貪心을 却ᄒᆞ라 大槩 人의 活ᄒᆞᄂᆞᆫ 거시 其 家産이 裕ᄒᆞᆫ ᄃᆡ 有치 아니ᄒᆞ니라 ᄒᆞ시고<1906누가12:15>

'탐심을 삼가고 조심ᄒᆞ라'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니치라'로 수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4)~(28)과 같은 예들을 통해 볼 때, 문법에서 비교적 위치 이동이 자유로운 것으로 다루어지는 부사의 위치가 공인역본 이후 현대국어의 직관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수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4.4. 생략 및 첨가

한국어 성경의 수정과 개역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잉여적 요소의 생략이 많이 확인되고, 첨가는 직역과 의역의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성경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수정이 대부분이다.

(29) ㄱ. 만물을 아바지씌셔 내게 주셧시니 아바지 외에ᄂᆞᆫ 아ᄃᆞᆯ이 누군지 아ᄂᆞᆫ 이 업고 아ᄃᆞᆯ과 ᄆᆡᆺ 아ᄃᆞᆯ이 소원대로 ᄀᆞᄅᆞ치ᄂᆞᆫ 이 외에ᄂᆞᆫ 아바지가 누군지 아ᄂᆞᆫ 이가 업ᄂᆞ이다 ᄒᆞ고<대전집1900/개화기1900누가10:22>
ㄴ. 만물을 아바지가 내게 주셧스니 아바지 외에는 아ᄃᆞᆯ을 누군지 아ᄂᆞᆫ 이 업고 아ᄃᆞᆯ과 ᄆᆡᆺ 아ᄃᆞᆯ이 소원대로 ᄀᆞᄅᆞ치ᄂᆞᆫ 이 외에는 아바지가 누군지 아ᄂᆞᆫ 이가 업ᄂᆞ이다 ᄒᆞ시고<1904누가10:22>
ㄷ. 모든거슬 아바지가 내게 주셧스니 아바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ᄂᆞᆫ 이가 업고 아ᄃᆞᆯ과 아ᄃᆞᆯ의 소원대로 ᄀᆞᄅᆞ친 쟈 외에는 아바지가 누군지

www.kci.go.kr

아는 이가 업ᄂᆞ이다 ᄒᆞ시고<1906누가10:22>
ㄹ. 모든거슬 父가 我의게 賜ᄒᆞ셧스니 父 外에는 子가 誰인지 知ᄒᆞᄂᆞᆫ 이가 無ᄒᆞ고 子와 子의 所願대로 敎ᄒᆞᆫ 者 外에는 父가 誰인지 知ᄒᆞᄂᆞᆫ 이가 無ᄒᆞ니이다 ᄒᆞ시고<1906누가10:22>

(30) ㄱ. 바리ᄉᆡ인이 하ᄂᆞ님나라히 어ᄂᆞ때에 니ᄅᆞ랴 뭇거ᄂᆞᆯ 예수ㅣ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하ᄂᆞ님나라히 니룸은 눈으로엇어볼거시아니라<1900누가17:20>
ㄴ. 바리ᄉᆡ교인들이 하ᄂᆞ님나라히 어ᄂᆞ때에 니ᄅᆞ랴 뭇거늘 예수ㅣ ᄃᆡ답ᄒᆞ여 ᄀᆞᆯᄋᆞ샤ᄃᆡ 하ᄂᆞ님나라히 니룸은 눈으로볼거시아니라<1904누가17:20>
ㄷ. 바리ᄉᆡ교인이 하ᄂᆞ님나라히 어ᄂᆞ때에 림호리잇가 뭇거늘 예수ㅣ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하ᄂᆞ님나라히 림홈은 볼수업고<1906누가17:20>
ㄹ. 바리ᄉᆡ敎人이 上帝國이 何時에 臨ᄒᆞ오릿가 問ᄒᆞ거늘 예수ㅣ 答ᄒᆞ야 曰 上帝國이 臨홈은 見ᄒᆞᆯ수업고<1906누가17:20>

(29)에서 ‘~과 밋’을 ‘~과’로, (30)에서 ‘눈으로 보-’를 ‘보-’로 수정한 것은 근대국어의 잉여적 요소들의 표현에 대한 생략 현상과 맥을 같이 하는 수정 내역이다.

5. 결론

성경은 특정 종교의 문헌이기는 하지만 당시 그 어떤 문헌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독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문헌으로서 사용역에 따른 언어 표현의 차이를 확인해볼 수 있는 문헌이고, 인쇄와 배포 양도 상당한, 근·현대 국어 연구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헌 자료이다. 번역 성경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원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번역본들 사이의 공시적·통시적 대비 연구에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국어사 연구 자료로서 한국어 번역 성경 자료를 조명하게 되는 요인이다. 성경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는 특히 문체와 어휘 연구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개신교의 한국어 성경 번역이 시작되던 19세기 말~20세기 초는 오랫동안 쓰여 왔던 한문투 문어체에서 국문 구어체 문체로의 변화가 시도되며 여러 유형의

www.kci.go.kr

문체가 경쟁을 벌이던 시기였고, 한국어 번역 성경만큼 현실 언어를 반영하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도된 영역도 드물기 때문에 이 시기의 한국어 번역 성경은 국어사 연구 자료로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국어사 기술을 위하여 이 시기의 문체 연구는 오랫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져온 부문이지만『텬로력뎡(天路歷程)』(1895)이나『서유견문(西遊見聞)』(1895)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국한혼용문 성경은 그간의 문체사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국한혼용문 성경은 국문 성경을 저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국한혼용문 연구에 앞서 공인역 국문 성경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고, 여기에 본고의 연구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번역 성경의 번역어를 비롯한 어휘론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① 한국어 번역 성경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본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어휘 검토가 이루어 진 적이 없다. 복음서의 일부, 전도서 등 성경 전서의 일부분씩만을 검토하고 있다. ② 어휘 변화에 대한 역본별, 혹은 통시적 연구가 거의 없다. 현대에, 새로운 번역 성경이 출간되면 그것을 대상으로 그 이전의 것들과 대조한 연구들은 있지만, 한국어 성경 번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어휘 및 구절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③ 어휘의 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드물다. 해당 어휘의 용법이 성경 고유의 용법인지 아니면 그 시기의 일반적인 용법인지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국어 번역 성경의 번역, 수정, 출판 과정을 고찰하여 한국어 번역 성경의 언어 표현이 갖는 특징과 성경 어휘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다. 본고는 개인의 자유 번역이나 창작물이 아니라 철저한 번역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공인역본들의 다양한 연구를 위한 기반 연구가 되고자 하였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밝혔다. 첫째, 한국어 성경 번역 과정에서 한국인 조력자들이 일차 작업을 하였다고 전해지나 '가-', '오-', '이/그/저' 등의 외국어 번역상의 문제들이 그대로 확인된다. 둘째, 성경 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과는 달리 성경에서만 쓰이는 전문어는 그리 많지

www.kci.go.kr

않고, 근대국어 연구에서 주목되는 국어학적 문제들이 다른 문헌들에서와 같이 확인된다. 셋째, 부사(어)가 서술어 가까이로 이동되는 어순의 수정이 적지 않게 확인이 되는데, 이는 현대국어에서와 같이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위치가 가까워지는 것이다. 넷째, 한문투 문어 표현에서 기인된 잉여적 표현들이 생략되면서 점차 현대적 구어체로 수정되는 방향성이 확인된다.

또, 본고에서는 한국어 번역 성경 자료를 국어학적으로, 국어사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 즉 언어 단위별 대조 분석법을 통한 번역 성경의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언어 단위별 대조 분석을 통하여 어휘들의 교체 및 수정 양상과 그 정착 과정을 다룰 수 있는 방법론으로 앞으로의 연구들에서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간 한 번도 다루어진 적이 없는 『신약젼셔』(1904 일본 요고하마 인쇄본)를 찾아내어 소개하고, 살펴본 것도 본고가 갖는 의의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수정 내역, 즉 빨간색 펜의 수기 수정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발견 및 소개의 의미가 더욱 크다. 시험역, 임시역, 공인역본을 대비해본 결과, 이 임시역본이 『신약젼셔』(1906)의 간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었거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開化期國語資料集成』과 『韓國聖經大全集』에 수록되어 있는 시험역본(1900)들이 다른 판본임을 설명하고, 그 세부적인 차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어사 연구에서 한국어 번역 성경 자료들이 더 정치(精緻)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임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이 앞으로 국어학, 국어사 연구 영역에서 한국어 번역 성경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될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신약젼셔, 예수셩교젼셔, 셩경젼셔 개역, 신약전서 개역 한글판, 번역자회, 켄뮤어, 공관 복음서, 시험역, 임시역, 공인역, 언어 단위별 대조 분석

www.kci.go.kr

<참고문헌>

국립국어연구원(1999),『국어의 시대별 변천연구 4-19세기 말~20세기 초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김동언(2003),「현대 국어 번역 문체 변천 연구:천로역정과 성경을 중심으로」,『어문논집』47, 129-159면.

김형철(1997),『19세기 말~20세기 초 국어연구』. 경남대출판부.

나채운(1990),『우리말 성경 연구』, 기독교문사.

노고수(1981),『한국 기독교 서지 연구』, 예술문화사.

대한성서공회(1993),『대한성서공회사 Ⅰ:조직·성장과 수난』, 성인문화사.

류대영·옥성득·이만열 공저(1994),『대한성서공회사 Ⅱ: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성인문화사.

민현식(2011),「한국어의 발달과 성서의 영향」,『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한글 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 기념논문집』, 188-235면.

서정수(1984),「한국교회사 연구자료 제12집 해제」, 태영사.

옥성득(1993), 초기 한글성경 번역에 나타난 주요 논쟁 연구(1877-1939),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석사논문.

옥성득·이만열 편역(2006),『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2권:영국성서공회 한국지부 초대총무 켄뮤어 서신, 한국(상임실행)성서위원회 회의록 1900~1905』, 성인문화사.

유경민(2011),「國漢 混用文 聖經의 定着 過程:『簡易鮮漢文 新約聖書(1913/1936)』를 중심으로」,『국어사연구』13, 263-301면.

유경민(2005),「지시어 '저'의 제한적 기능에 대한 통시적 고찰」,『한국어의미학』16, 179-204면.

윤치호著, 송병기譯(1975),『尹致昊國漢文日記』, 탐구당.

이덕주(1985),「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특히 성서번역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기독교문사, 409-505면.

www.kci.go.kr

이응범(1992), 한글 개역 성경의 저본에 관한 고찰,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전무용(2002),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본문 계보 관계 연구」, 『성경원문연구』 10, 대한성서공회, 90-103면.
전무용(2005),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간이국한문』의 한자어」, 『성경원문연구』 17, 대한성서공회, 178-209면.
정길남(1987), 『19세기 말~20세기 초 국역성서의 표기법과 문법형태』, 개문사.
정길남(1992), 『19세기 성서의 우리말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정길남(1997), 『19세기 말~20세기 초 교과서의 우리말 연구』, 박이정.
정정호(2007), 『19세기 말~20세기 초 개신교의 번역사역과 한국 어문의 근대화』, 『번역학연구』 제8권2호, 한국번역학회.
한종수(1997), 『개역성경과 헬라어 표준 원문 비교연구 : 서로 다른 점과 삭제된 부분들』, 기독교문서선교회.
히로 타카시(2005),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히로 타카시(2006), 「『新約全書 국한문』의 저본에 대하여」, 『역학서와 국어사연구』 태학사, 509-549면.

<성경류>
정길남 편(1995), 『開化期 國語資料集成 : 성서문헌편』 1권~10권, 박이정출판사.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편(2002), 『韓國聖經大全集』 권1-권60,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예수셩교젼셔』(1887), 대한성서공회 소장, 정길남 편(1995) 및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편(2002) 수록.
『신약젼셔』(1904), 연세대 소장본. 온라인 공개.
『신약 개역』(193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56), 대한성서공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 대한성서공회.

www.kci.go.kr

<인터넷 사이트>
대한성서공회 http://www.bskorea.or.kr
온라인성경원문서비스 http://www.bible4u.pe.kr/, http://www.biblegateway.com/versions/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library.yonsei.ac.kr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http://www.ssu.ac.kr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Korean linguistics for the process of completion, the first complete translation of New *Testament*(1900-1904-1906) in Korea

Yu Kyungmin

Generally, the materials of Korean version Bible have not been dealt in Korean linguistics in comparison with other parts of literature. In fact, the Protestant missionaries' works of literature seem to be nonacademic and prejudiced because of the outcomes strategically based on their religious purpose, therefore they're unacceptable among the academic investigators. They say that the early Korean version Bibles were translated personally, written vernacularly, mostly religious terminologies in New Testament and the sentences of contemporary ones are informal and so forth. Actually, however, the Korean version Bibles have been translated and modified by reflecting linguistic reality for the purpose of missionary works as well as acquiring public readers. Also, the retranslated and the Revised Version have been published continuously for the sake of the readers and spelling orthography. The Korean version Bibles are Korean linguistic materials more than 100 years. Furthermore, it's possible to study on the correspondence between two words that's because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has a characteristics from the same original and has a principle of literal translation.

This paper explains that it's necessary and important to study Korean version Bibles equivalently, in comparison with the materials of Buddhism, Confucianism, medicine that were studied positively. This paper also not only illuminates why

www.kci.go.kr

and how far it is away from, if contemporary Korean version Bible diverges from the formal representation but demonstrates how much this literatures effected on the formations of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in the 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The first complete translation(Korean version) of New Testament was published in 1900. This is called 'Tentative Edition of the Board'. Since then 'The Permanent Executive Bible Committee - Board of Official Translators' brought out the Revised Bible in 1904. As there were lots of problems in the Revised Bible, they published the New Testament authorized version in 1906. The representations and vocabularies of Korean on those day could be found by researching how they amended and what they modified from the 'Tentative Edition of the Board' of 1900 to the New Testament of 1906, by way of the Revised Bible of 190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modifying process how this Korean version Bible became established in Korea.

【key words】 New Testament, complete translation, Tentative Edition of the Board, Bible Translation in Korea, revised version, authorized version, retranslated, vocabulary, Protestant missionary

유경민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560-7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자우편 : cherubyu@naver.com

이 논문은 2014년 7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8월 15일에 심사 완료되어 9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www.kci.go.kr